

Susumu KAMIJO

Naver design press,

The mysterious and enigmatic identity of the poodle, Susumu Kamijo's first solo show in Korea

April 2022

디자인·아트 전시/행사 1,369개의 글

목록열기

디자인·아트 전시/행사

신비롭고 수수께끼 같은 푸들의 정체, 스스무 카미조의 첫 내한 전시



디자인프레스 · 2022. 4. 22. 12:24

URL 복사

+이웃추가



페로탕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 <ALONE WITH EVERYBODY>



View of Susumu Kamijo's solo exhibition "Alone with Everybody" at Perrotin Seoul, 2022
Photo: Youngha Jo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View of Susumu Kamijo's solo exhibition "Alone with Everybody" at Perrotin Seoul, 2022
Photo: Youngha Jo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기하학적인 선과 색면. 얇고 유려한 형상을 따라 캔버스에 몇 발짝 다가선 순간 보이는 동물의 눈코입. 알고 보면 푸들이다. 푸들 그리는 작가로 알려진 스스무 카미조가 페로탕 서울에서 첫 내한 전시를 연다. 그는 뉴욕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 태생의 작가로 최근 블루칩 작가로 떠오르는 아티스트다.



Susumu Kamijo, Solace, 2022 Flashe vinyl paint and pastel pencil on canvas 160 x 132 cm | 63 x 52 in.
Photo: Dan Bradica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운명처럼 시작된 푸들과의 인연

카미조 작가는 어느 날, 애견미용사로 일하는 애인을 보러 갔다가 푸들을 만났다. 갑자기 푸들의 형상이 흥미로워 보였고, 그 매력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 계기를 '거의 우연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한다. 2014년부터 푸들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작업을 발표하자마자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푸들은 복슬복슬하고 귀엽다. 카미조가 그리는 푸들은 그 형상을 잘 드러내면서도 뻔하지 않다. 마치 미지의 세계를 떠도는 듯한 이미지가 어디선가 본 듯한 인물의 초상 같다.



Susumu Kamijo, Far Away Eyes, 2022
 Flashe vinyl paint and pastel pencil on canvas 160 x 132 cm | 63 x 52 in.
 Photo: Dan Bradica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L) Susumu Kamijo, Call Me Again, 2022 Flashe vinyl paint and pastel pencil on canvas 160 x 132 cm | 63 x 52 in. (R) Susumu Kamijo Gentle Mind, 2022 Flashe vinyl paint and pastel pencil on canvas 160 x 132 cm | 63 x 52 in.
 Photo: Dan Bradica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푸들 너머의 세계

카미조 작가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예술가로 빌럼 드쿠닝 Willem de Kooning, 필립 거스틴 Philip Guston, 그리고 프란시스 베이컨 Francis Bacon 을 꼽는다. 그의 화풍은 추상표현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 작가 특유의 화면의 '플랫함'도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위의 화가들과 마찬가지로 카미조 작가는 거침없는 붓질로 회화의 역동성을 담아내고 있지만 동시에 정돈된 구성감도 돋보인다. 아마 처음 이 그림을 본다면, 이것이 푸들인지 아닌지 금세 알아차리긴 어렵다. 자세히 보고 또 들어가 화면 속 푸들이 드러난다.



View of Susumu Kamijo's solo exhibition "Alone with Everybody" at Perrotin Seoul, 2022
Photo: Youngha Jo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카미조 작가는 '나의 그림은 개라는 존재로서의 푸들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푸들의 형상이 무엇을 제시할지 의미를 둔다'고 했다. 그에게 영감을 준 것은 푸들이지만 그가 그려나가는 화면은 푸들 너머의 신비로운 회화 세계라고도 볼 수 있겠다. 최근작에서는 마치 귀부인 같은 푸들의 형상 뒤로 해변과 야자수나 가로수, 호수, 달과 해 등이 등장한다. 그림을 보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상상력의 범위는 크고 넓다.



(L) Susumu Kamijo On the Voyage, 2022 Flashe vinyl paint and pastel pencil on canvas 60.9 x 50.8 cm | 24 x 20 in. (R) Susumu Kamijo Cozy Royal, 2022 Flashe vinyl paint and pastel pencil on canvas 60.9 x 50.8 cm | 24 x 20 in.
Photo: Dan Bradica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재빠르게 긁는 서예의 붓질

어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기저기 물감이 흐른듯한 자국이 보인다. 푸들의 형상은 날렵한 붓질로 그어나간 흔적이 뚜렷하다. 카미조 작가는 푸들을 그릴 때 '빠르게 써 내려가는 일본 서예의 문자처럼' 재빠른 움직임을 주고자 했다. 이미 완성된 작품이지만 라이브 드로잉을 보듯 생동감이 느껴지는 이유다. 어떤 표정인지 잘 드러내지 않는 푸들의 앙다문 얼굴은 그 가운데서 시선을 고정시킨다.

카미조 작가는 2021년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화가란 종종 본인의 '감정의 욕조'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그의 내면에서 끌어올린 세계는 한없이 수수께끼 같기도, 미로같기도 하다. 복잡복잡하고 귀여운 푸들 그림이 마냥 귀엽게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 서예처럼 획획 그어나가는 본능적인 붓질은 그보다 훨씬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View of Susumu Kamijo's solo exhibition "Alone with Everybody" at Perrotin Seoul, 2022
Photo: Youngha Jo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View of Susumu Kamijo's solo exhibition "Alone with Everybody" at Perrotin Seoul, 2022
Photo: Youngha Jo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전시 정보

전시명 | 스스무 카미조 ALONE WITH EVERYBODY

기간 | 2022년 4월 21일 ~ 5월 26일

장소 | 페로탕갤러리 서울 (서울시 종로구 팔판길 5)

시간 | 10:00 ~ 18:00 (월, 일요일 휴관)

스스무 카미조 Susumu Kamizo

스스무 카미조는 1975년 일본 나가노 출생으로 현재는 뉴욕 브루클린에 거주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미국 오리건 대학교를 졸업하고 워싱턴 대학교에서 회화 석사를 졸업했다. 프란시스 베이컨, 빌럼 드 쿠닝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그의 푸들은 2014년 첫 등장 이래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작가가 사용하는 빠르게 마르는 속건성 비닐페인트는 모든 그림에서 그가 말하는 "신속한 결정" 을 하게 한다. 대상을 실감나게 포착하기 위해 빠르게 그림을 그리는 기술은 작가가 젊은 시절 일본 서예를 배운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또한 창작 글쓰기에 대한 그의 관심은 시의 미니멀리즘과 단편 소설의 놀라움을 모방한 서사적인 "스타일" 을 그의 그림에 부여하기도 했다. 작가는 드로잉과 페인팅 기법을 결합하여 종종 미묘한 색상의 거친 붓질로 도상과 기호의 집합체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작업은 마치 장난스러운 명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해석에 충격을 주고, 자극하며, 변형시키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글 | 디자인프레스 이소진 수석기자

(designpress2016@naver.com)

자료 제공 및 협조 | [페로탕 서울 갤러리](#)